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유년부

유년부 약 속

-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1월 교육 내용	04
● 1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1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1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1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3
● 위드 포토	54
● 1월 추천도서	56
● 1월 위드스티커	57
● 1월 교육활동지	59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암송 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첫째주♥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6)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둘째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보면”

거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31-32)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요.

♥셋째주♥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20)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넷째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13-14)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실천 내용

1. 새해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 해보기
2.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나의 ‘다짐 리스트’ 만들어 보기



• 1월 첫째주
2020년 1월 5일~11일



memory time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첫째주

- ♥ 주제 :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 ♥ 암송구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6
- ♥ 오늘의 주제 :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 2:44-47
-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어떻게 생활했나요?

빈 칸을 채워보아요. (44-47절)

“모든 물건을 서로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 ○○ ○○”

“날마다 ○○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 ○○을 먹고”

“하나님을 ○○하며” “온 백성에게 ○○ ○○을 받으니”

- ②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47절)

★ 교육활동 - “나를 소개해요”

새해 첫 주일이에요. 새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SIDE family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6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 2:44-47

초기 교회에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집이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흐르는 축제였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지요.

우리 반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사이좋게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요.



Q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Pray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2020년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0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전서 14:26-40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6.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27.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28.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29.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 하십시오.

(생략)

36.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37.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8.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39.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40.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덕: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with
관찰

1.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나요? (26절)

“... 모든 일을 남에게 이 되게 하십시오.”

with
생각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점차 교만해지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해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사랑하고 덕이 되어 서로를 세워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다른 사람들을 상처주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남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남에게 덕이 되도록 사용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전서 15:1-11 “하나님의 은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습니다.
2.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5. **계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7.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9.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계바: ‘바위’란 뜻.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

박해: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with
관찰

1.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9절)

“... 내가 하나님의 [] [] 를 [] [] 했기 때문입니다.”

2.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말했나요? (10절)

“...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 [] 입니다.”

with
생각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요.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할 수 있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전서 15:12-34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3.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16.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7.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1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증언: 어떤 사실을 증명함.
또는 그런 말.



with
관찰

1.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선포와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요? (14-15절)

“... 우리의 선포도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되이 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with
생각

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나요? (20절)

“...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가 되셨습니다.”

with
결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 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하지만 고린도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죄 또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했어요.

with
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해요.

한줄 기도 :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감사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전서 15:35-58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58.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7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2.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8절)

우리의 □□가 주님 안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with
생각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하는 것 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바울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넘어 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그들의 수고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계시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쉽게 흔들렸어요.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 로마서 14:1 -





1월 둘째주

2020년 1월 12일 ~ 18일

memory time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보면

둘째주

-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 암송구절 “거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치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31-32
- ♥ 오늘의 주제 :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보면 ▷마가복음 4:30-32
- ♥ 오늘의 포인트 :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ㄱ ㅅ ㅆ

②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무엇일까요?

★ 교육활동 - “나의 다짐 적어보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SID Family Time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31-32

♥ 오늘의 포인트: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보면 ▶마가복음 4:30-32

겨자씨는 점처럼 아주 작아요.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으면 쑥쑥 자라나서 어떤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가 돼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던 겨자씨지만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 실천하는 여러 작은 일들이, 할 때는 큰 일이 될 것 같지 않고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작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의로운 행동들로 세상이 변화가 될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Q 1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하나님! 우리 가족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겨자씨가 되게해주세요.

GOD'S TIME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전서 6:1-11 “믿음에 굳게 서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3.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14.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15.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17.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18.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여사전

생기: 힘찬 기운

with
관찰

1.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아닌 것은? (13절)

- ① 깨어 있으십시오
- ② 두려워 하십시오
- ③ 힘을 내십시오
- ④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2. 빈칸에 들어갈 공통된 말을 써넣으세요. (16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하십시오.”

with
생각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라고 권하였어요. 이는 환난과 팝박이 많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하였어요.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with
결심

우리도 환난과 팝박이 많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가져야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사랑으로 행하여야 해요.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늘 담대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1:1-11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4.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6.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7.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환난: 근심과 재난

with
관찰

1.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나요? (1절)



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에 있는 모든 성도

2.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4절)

○ ㄹ

with
생각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며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시라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도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해야한다고 말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야 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즉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말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with
말씀

고린도후서 1:12-24 “주 예수의 날에 자랑해요”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2.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3.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14.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처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with
관찰

1.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2절)

- ①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으로 행함
- ② 진실함으로 행함
- ③ 세상의 지혜로 행함
- ④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보세요.

“... 우리 의 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14절)

with
생각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주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주 예수의 날에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바울 자신이 자랑이 되기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을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때에, 주 예수의 날에 자랑 할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다른 사람들을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며 살아갈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2:1-17 “그리스도의 향기”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7.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개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을 고쳐
더 좋게 만듦.

with
관찰

1.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무엇이라고 말하였나요? (15절)

				의		
--	--	--	--	---	--	--

2.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닌 것은? (17절)

- 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
- ②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 ③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
- ④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with
생각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밝히 드러냈어요. 바울은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밝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했어요.

with
결심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 로마서 14:1 -





1월 셋째주

2020년 1월 19일~25일



Memory Time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셋째주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20

♥ 오늘의 주제 :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4:1-9, 13-20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요.

★ 말씀 나눔

- ① 예수님이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각각 어떤 밭으로 말씀해주셨나요?
다음 그림을 보고 바르게 연결해보세요.



•



•



•



•



•



•



•



•

- ②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나요? (8절)

★ 교육활동 - “바르게 예배드려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OX퀴즈를 통해 알아가요.

SWK's Family 가족과 함께하는 *Family*



셋째주

-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 암송구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20
-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답니다.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4:1-9, 13-20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요. 같은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답니다.



Q 1 우리 가족의 마음 밭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Pray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경험 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GOD'S TIME 1

with
말씀

고린도후서 3:1-18 “옛 언약과 새 언약”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생략)

-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광채 : 아름답고 찬란한 빛

직분 : 마땅히 하여야 할
분분

대담 : 담력이 크고 용감함

처신 :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완고 :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

너울 : 얼굴이 가리기 위하여
쓰던 물건



with
관찰

1.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 새 언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나요?(6절)

“이 새 언약은 로 된 것이 아니라, 으로 된 것입니다.”

2. 사도 바울은 우리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였나요?
(18절)



with
생각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율법은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지만 새 언약의 법은 ‘의를 베푸는 직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너울을 벗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로 섬겨야 한다고 했어요.

with
결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다른 것에 계속해서 의지하게 된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즉 옛 언약의 율법에 갇힌 삶을 살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고백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구원주시고 은혜주심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4:1-15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신 우리 몸에 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낙심 : 바라던 일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박해 :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with
관찰

1.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하였나요?(10절)

[] [] 의 [] [] 당하심

2.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나요?(15절)

“이 모든 일은 다 [] [] [] 을
위한 것입니다.”

with
생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기 원했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기억하기 원했어요.

with
결심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크고 작은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짐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4:16-5:10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2.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 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7.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8.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9.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갈망: 간절히 바람

탄식: 한탄하여 한숨을 쉼

보증: 어떤 것에 대하여 책임
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보응: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
갚음을 받음

with
관찰

1.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나요?(1절)



2.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9절)



with
생각

사도 바울은 세상의 열망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임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의미해요.

with
결심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끊임없는 고통과 유한한 생명으로 장막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장막집이 무너진 후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5:11-21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생략)

-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Q. 단어사전

잣대: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데 의거하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피조물: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

죄과: 죄와 허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절: 집단을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파견되는 사람

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with
관찰

1.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 하였나요?(17절)

새로운

--	--	--

2.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하였나요?(18절)

unto unto 의 직분

with
생각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심을 설명하면서 즉 우리가 서로 화해하며 화목해야 함을 말했어요.

with
결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해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두와 화목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 로마서 14:1 -





1월 넷째주

2020년 1월 26일~2월 1일



memory time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넷째주

-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 암송구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네가나와 한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13-14
- ♥ 오늘의 주제 :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마태복음 20:1-16
-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은 얼마였나요?(2절)
- ② 왜 포도원 주인은 늦게 와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한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을까요?

★ 교육활동 - “포도 모자이크”

- ①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위드 활동지에 있는 포도 그림을 모자이크로 채워봐요.
- ② 주어진 색종이를 잘게 찢어서 포도그림을 모자이크로 채워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SI

Family Time



넷째주

♥ 주제 :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 암송구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 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13-14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마태복음 20:1-16

포도원 주인은 여러 명의 품꾼을 불러 일을 하게 하고,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어요. 하지만 일찍 와서 여러 시간을 일한 품꾼들과 늦게 와서 얼마 일하지 않은 품꾼들이 받은 품삯은 똑같았어요. 이것을 알게 된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이와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아요.



Q 1 일찍 온 품꾼과 늦게 온 품꾼은 똑같은 품삯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내가 일찍 온 품꾼이었다면 어땠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Pray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6:1-18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짹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뜻이 무엇이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 할 것이다.”
18.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멍에: 연합

벨리알: ‘사탄’의 대명사



with
관찰

1.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라고 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14-16절)

의의와 빛과 와
별리알 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과

2. 사도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16절)

살아계신 의

with
생각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마치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서로 어울릴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연합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마귀가 손잡을 수 없듯이, 믿음과 불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이방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해요.

with
결심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어떤 교제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문화, 전통, 생각, 생활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물들지 말라는 의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7:1-16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근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 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 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실의: 뜻이나 의욕을 잃어버림

열성: 열렬한 정성

변호: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줌

의분: 불의에 대하여 일으키는 분노

응징: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

with
관찰

1. 사도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6절)



2.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있나요?(10절)

“를 하게 하여 에 이르게 한다.”

with
생각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 마케도니아에서도 편할 수 없었어요. 교회 안의 다툼과 마음 속의 두려움으로 인해 계속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이지요. 그 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쓴 편지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사도바울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해요.

with
결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악습과 성도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물로 쓴 편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너무 강력하게 책망한 글이었기 때문에 사도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의 방향을 바꾸고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지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8:1-24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2.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3.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4.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5.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생략)
6.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7.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8.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9.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11.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구제: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자원: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함

with
관찰

1. 다음 중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성도들은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다.(2절)
- ②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서 소심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2절)
- ③ 성도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다.(3절)
- ④ 성도들은 자원하여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다.(3절)

2.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위해 구제할 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나요?(11절)



with
생각

사도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 가난에 시달려 있을 때의 모습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워했고, 그들이 곤경에 처했지만, 오히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고자 했으며,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베풀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사도바울은 지난 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을 하루 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with
결심

극심한 가난에 처한 마케도니아 성도들도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고자 했어요. 그 마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구제해야 해요. 그 마음은 나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9:1-15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생략)

-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연보(헌금)해야 한다고 하나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 각자 마음에 정한대로 한다.(7절)
 - 아까워하면서 내지 않아야 한다.(7절)
 - 슬퍼하면서 내야한다.(7절)
 - 마지못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7절)

2. 사도바울은 봉사하는 일(구제하는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나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를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with
생각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연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제 활동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드릴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를 낳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12절)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 구제하는 자에게 이렇게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해요. “농부에게 먹을거리가 될 씨앗을 주시는 자극히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메시지성경, 10절)

with
결심

사도바울은 남을 위해 구제를 할 때 몇 가지 권면하고 있어요. 각자 마음에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구제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누군가를 위해 베풀기 원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시편 23장, 새번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OO아(야), 잘 잣니?

잠자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1서 4장 16-19절 말씀이야. 엄마, 아빠가 OO(이)를 사랑하고, OO(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OO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오늘 하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쁜 하루되기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잘 자고 일어나 새 아침을 맞게 해 주시니 감사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려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려요. OO(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OO(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OO(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루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어노인팅>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자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끌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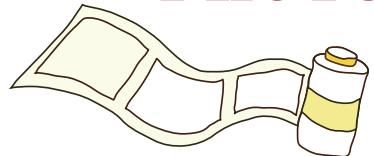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OO(이)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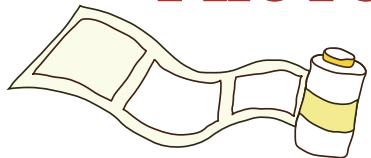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OO(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OO(이)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시간 잠자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 나는 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드 PHOTO



와드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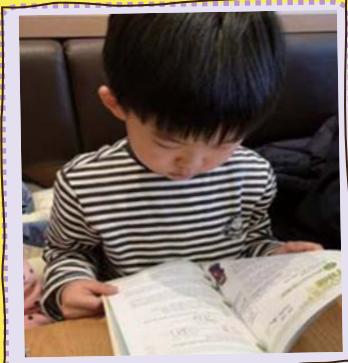


유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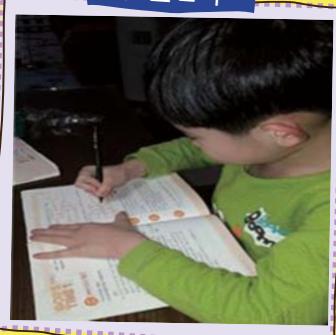
1-4 김선우

유년2부



1-6 표하진

유년2부



1-9 이민찬

유년2부



1-10 허준서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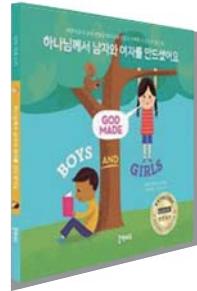
1월

제목 :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글/마티 마쵸스키

그림 / 이선화

출판사 / 홈앤에듀



이 책은 성 정체성에 관한 견해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남녀 성별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티 마쵸스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성경적 진리를 제공하며 성염색체에 의한 정확한 남녀의 구별, 성별 교체가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 간성이 제 3의 성이 아닌 신체 증후군임 등을 쉽고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이 책을 감수한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한국가족보건협회 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강사들이 활용할 선정도서로 이 책을 지정했는데 이 책이 널리 알려져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지하고, 리비도 우상화를 향해 달려가는 그릇된 트렌드를 바로잡는 사역에 매우 중요한 지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결혼이나 성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별교체 등이 가능할 수 없음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이 매우 재미있어서 단숨에 아이들이 다 읽으려고 듭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유년부 친구들이 성경적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대합니다.

1월 STICKER

Bible
study!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	●	●	●	●	●
2주	●	●	●	●	●	●
3주	●	●	●	●	●	●
4주	●	●	●	●	●	●
5주	●	●	●	●	●	●

1월 첫째 주 (1/5)

사는 곳 :

좋아하는 것 :

잘하는 것 :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

- “나를 소개해요” -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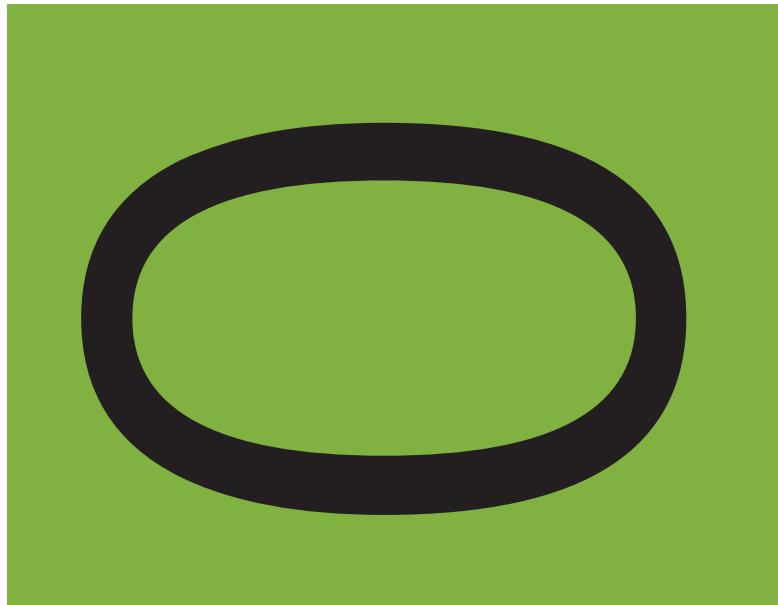
.....

위의 일들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름 :

1월 셋째 주 (1/19)

– “바르게 예배드려요” –



12월 넷째주 (12/22) -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